

동아쏘시오홀딩스 '25년 2분기 실적발표 스크립트

'25년 2분기 연결실적

- 2분기 연결 매출은 사업회사들의 고른 성장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한 3,469억원 달성. 특히 에스티젠바이오가 전년대비 230.5%로 크게 증가한 250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동아제약(13.7% yoy)과 에스티젠바이오(6137.4%, yoy)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28.8% 증가한 287원 기록. 에스티젠바이오는 상업화 매출과 신규 수주 등으로 영업이익이 지난해 1억원에서 43억원으로 증가. 참고로 지난 4월 30일, 포장용기회사 수석(준속회사)이 음료제조회사 동천수를 흡수 합병하여 동아에코팩(舊 수석)으로 사명 변경. 합병으로 포장용기에서 제조까지 수직 계열화하고, 자산의 운영 효율화로 시장 경쟁력 확보하여 매출과 수익성 개선 목표.

동아제약

- 2분기 매출은 박카스(-2.8% yoy)와 생활건강부문(-5.8% yoy)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일반의약품부문(23.2% yoy)이 크게 성장하여 전년대비 3.4% 증가한 1,816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효율적 판관비(광고/프로모션 등) 집행으로 13.7% 증가한 239억.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박카스부문은 경기침체 및 음료시장 경쟁 심화로 2.8% 감소한 1,240억원. 다만 7월부터 박카스 소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신제품 얼박사를 출시. 지난 3월 가격인상 효과도 점진적으로 반영되어 연간 성장 예상. 생활건강부문 역시 건강기능식품시장 성장 정체와 과다 경쟁으로 5.8% 감소. 하반기 신제품 출시와 메가브랜드 오쏘몰 SKU 다변화 및 프로모션 강화로 연간 성장 목표. 일반의약품부문은 여전히 피부외용제들이 성장을 주도하며 23.2% 성장. 신제품도 지속적으로 발매, 성장 중. 특히 작년 하반기 발매한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맥스콘드로이틴이 상반기 83억원 매출 달성. 더마화장품부문 파티온은 속도는 기대보다 느리지만 국내외 성장 중. 해외는 중국, 일본, 미국 중심으로 인플루언서(KOL) 및 온라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 '25년 동아제약은 경기침체 영향에도 일반의약품부문 성장 주도로 지난해와 비슷한 기조로 성장 예상.

에스티젠바이오

- 2분기 매출은 신규 수주 및 스텔라라BS 이물도사의 상업화 물량으로 전년대비 230.5% 증

가한 250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와 가동률 상승에 따른 생산 효율화로 6137.4% 증가한 43억원 기록. '24년 글로벌 트랙레코드 확보 후 RFP(제안요청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고객사로부터 6월12일 98억원, 7월2일 45억원 2건의 수주 계약 체결. 그룹이 개발한 스텔라라BS 이물도사는 '24년 10월 FDA, 12월 EMA 품목허가를 득해 '25년 1분기 독일, 덴마크를 시작으로 2분기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등 총 13개 국가에 출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국가 등도 승인되어, 곧 런칭할 계획. 미국 시장은 현지 패키징 일정 지연으로 8월초 발매 예정. 에스티젠바이오는 올해 이물도사 유럽, 미국 발매에 따른 상업화 물량 증가와 신규 수주로 매출 크게 증가 예상. 또한 생산 효율화를 통해 이익 개선폭도 확대할 예정.

용마로지스

-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및 내수 경기 침체 영향으로 각각 1.0%, 38.3% 감소한 1,007억원, 48억원 기록. 영업이익 크게 감소한 이유는 고객사 수익인식시기 조정 과정에 따른 기저효과, 연평균 OPM이 4.5%대인 상황에서 '25년 2분기 4.8%로 수익성 저하는 아님. 하반기 적극적인 주력 산업군 신규 화주 유치와 물류 영역 확대로 연간 성장 목표. '26년까지 용마로지스는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27년 안성 신허브센가 완공/가동되면 고성장 가능.

[끝]